

## 효과적인 프로젝트 설계: 신념과 자세

### 유념

#### 유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엘렌 랭거는 인간행동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여 “유념”이란 이론을 개발하였습니다. 유념하는 행동은 주의하는 조심스런 행동이지만 또한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유념은 삶을 완전하게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사고에 기여하는 일련의 특정한 자세를 알아내려고 한 코스타, 티쉬만, 퍼킨스와는 달리, 랭거는 “유념”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게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랭거에 따르면 유념하는 행동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다섯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 새로운 범주를 만들고 기존 범주를 재창조
- 무의식적인 행동 조절
- 새로운 관점을 수용
-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
- 불확실성을 용인함

#### 범주를 다시 생각함

유념하지 않는 이들은 익숙한 기존의 범주에 의지합니다. 새로운 범주를 만들고 기존 범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유념하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도구를 분류하는 범주를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무의식적인 행동 분석

무의식적인 행동을 자각하는 일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별 다른 생각없이 과제를 하던 대로 하게 되면 발전과 향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뒤쳐지게 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자각하게 만드는 교사는 학생들이 더욱 유념하여 학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정보 수용

종종 사람들은 첫 인상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반대 근거가 있어도 그 의견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랭거는 이를 “*미성숙한 인지 노력*”이라 부릅니다(p. 22). 유념하는 이들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해를 높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지 한 가지 관점이나 한 가지 문제해결 방법으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유념하지 않는 학생들은 각 과목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수학이 역사 이해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미술이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념하는 학생은 엄연히 다른 대상과 아이디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범주를 만듭니다.

###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강조

사회와 학교는 종종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성과의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강요합니다. “할 수 있을까?” 대신 과정지향적인 “어떻게 해야 하지?”는 과정의 필요한 단계를 명확히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p. 34). 진행되는 각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은 또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변화와 수정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이처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하게 하는 대신, 다음에 오는 단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므로 학생들에게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 생각하고 공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사는 또한 모든 결과물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고 어떤 과정이 다른 과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학생들을 과정에 집중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정 계획과 실행 도구를 제공하는 일은 그들에게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에 신경을 쓰는 시간을 줄여 주고, 대신 일이 달성되는 방식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불확실성 용인

많은 이들이 예측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A 다음에 B가 오고 항상 이러한 순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유념하는 이들은 세상은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종종 혼돈 그 자체라는 것을 압니다.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익숙한 학생은 분명한 사고가 요구되는 경우에 크게 유리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결론을 급하게 내리지 않으며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답을 하면서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기꺼이 용인하는 자세는 부분적으로는 개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누구나 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특정 지시를 받지 못하면 불안해 하고 그러므로 종종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하나 하나 말해 주는 것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는 일 보다 더 쉽다고 느낍니다. 학생들에게 모호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 해결의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따라서 학습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나 미래의 유사한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전략과 같은 일반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해 자기 자신의 답을 찾도록 애쓸 기회를 주는 것과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생들이 배우고 또는 경험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지침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스스로 풀도록 요구한다면 진정으로 불확실성을 용인하는 것과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지침을 주지 않은 것은 학생 자신들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유념의 개념은 교실 내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의 마음의 습관과 티쉬만과 퍼킨스의 사고 기질 등과 같은 사고의 틀이 사고에 대한 자세를 보다 쉽게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로 나누고 있는 반면, 유념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는 학생들의 주의를 자신들이 과제에 맞추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험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려라” 또는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동안 항상 잊지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등의 말은 효과적인 사고에 기여하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활용하도록 되새겨 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 참고문헌

Langer, E. J. (1989). *Mindfulness*(유념). New York: Merloyd Lawrence.